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종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4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이종배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영철,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영한, 송경택,
유만희, 이성배 의원(11명)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청소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의 실행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그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인근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류 혼합 음료를 판매한 혐의가 적발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면서 마약 범죄가 학부모와 교육계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음.

- 실제로 마약 범죄는 2022년 10,331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은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청소년 마약 범죄도 증가해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2018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마약 범죄 확산에 대응해 정부는 2023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예방 단속 재활 조치를 강화했고, 서울시 교육청과 보건 당국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예방 교육을 확대하였고, 경찰청도 온라인 거래와 밀수를 포함한 마약 유통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런 마약 퇴치 활동에 미흡한 면도 적지 않은데,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 총 1,340여 곳 가운데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23년 기준 58개나 되며, 학부모 대상 마약 예방 교육도 '23년에만 39개 학교에서 실시했을 뿐임.
- 이에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의 실행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4. 이송처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2023년 4월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료에 마약류를 혼합해 판매한 혐의가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특정 음료를 마시면 학업 스트레스 해소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속이며 접근했다. 그러나 그 음료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을 마약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은 학부모와 교육계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19명에, 여러 이유로 신고하지 못한 학생들까지 고려하면 피해자 수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그 대응책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및 학원가 주변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 마약 범죄는 과거 특정 집단에서만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에게까지 검은손을 뻗치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2022년 마약 범죄는 10,331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만 13만 명의 마약 사범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도권에 마약 관련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 청소년 마약 범죄도 증가해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2018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 마약 종류가 다양화되고 접근이 용이해지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기존 마약뿐 아니라 합성 마약, 신종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마약류 유통 방식이 변화해 소셜 미디어와 메신저 앱을 통해 쉽고 은밀하게 거래되어 추적도 어렵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의료용 마약 처방이 증가하며 오남용 사례도 늘고 있다. 2022년에는 약 1,946만 명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으며, 청소년 처방 증가율은 최근 3년 동안 50%

가량 증가했다.

- 이와 같은 마약 범죄 확산에 대응해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023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예방·단속·재활 조치를 강화했다. 서울시 교육청과 보건 당국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도 온라인 거래와 밀수를 포함한 마약 유통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하지만 이런 마약 퇴치 활동에 미흡한 면도 적지 않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총 1,340여 곳 가운데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23년 기준 58개나 되며, 학부모 대상 마약 예방 교육도 '23년에만 39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그 후로는 학교별 학부모 교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의 실행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25. 1.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